

## 주요 20개국(G20)과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

- 과기정통부, 주요 20개국(G20) 장관들과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황판식 연구개발정책 실장을 수석 대표로 9월 19일(목)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연구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니, 튀르키예,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 연합(EU)

이번 연구혁신장관회의는 국제적 난제 해결 과정 내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20개국 실무단으로 승격되는 첫 회의로서, 향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된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 연구혁신 장관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향 및 절차를 수립하고, 세계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생명공학, 양자 기술에 관한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전략('24.4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체제 체계화 방안('24.3월)” 등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혁신 정책들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보건 위기, 생물다양성 등 국제적 도전과제 해결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 협력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20개국 국가들과 함께 개방형 혁신 기반 북-남 협력\* 증진, 탄소중립 경제 활성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보전 연구 논의 등 이번 회의의 중점 주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며, 국제사회 내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에 동참할 계획이다.

\* 북-남 협력(North-South Partnership): 선진국과 개도국 간 협력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과학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연구혁신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요 20개국 회원국과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국면전환요소(게임체인저) 기술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혁신 관련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다자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허은영 (044-202-4360)
		담당자	사무관	장지선 (044-202-4362)

